



◆ 소나무 재선충 예기는 안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확산저지 민·학·관 간담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간담회」가 4.19일 오후 2시 남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최노석, 금강소나무 복원 국민운동본부 대표), 학계(홍성천, 경북대 명예교수), 공공기관(정재수 경상북도 산림과장 및 경북북부지역 5개 시·군 산림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소나무종인 금강소나무가 집단 생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송이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광릉 수목원과 서울 태릉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북 북부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지역 주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영돈)은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직영방제단 운영,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이동단속 강화, 산림병해충 예찰원 증원, 경상북도와 MOU를 통한 솔수염하늘소 우화기(4월말) 전에 방제작업 마무리 등 재선충병의 확산저지와 나아가 경북지역에서 재선충병을 완전 퇴출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자연적인 최대이동거리인 3~4백미터를 훨씬 넘는 지역으로의 확산은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는 것과 소나무류 고사목을 제거하는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김갑일 054-850-7780

◆ 전북 익산시 소나무 3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

-산림청·전북도 합동으로 긴급 현장대책회의 개최(07.4.27)-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소나무림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되어 산림청·전북도 합동으로 긴급 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지역 조사와 발생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방제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3그루는 그동안 경기·강원·서울 등지에서 발견을 계기로 정밀예찰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조기에 발견하여 초동방제하면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충이 발견된 지역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소재 산림 5ha 소나무 5천여 그루 중 3그루라고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발견경위〉

- '07. 4. 20. 예찰조사 중 고사목 발견(익산시청 산림공원과 이병갑)
- '07. 4. 25. 전북 산림환경연구소 진단결과 재선충병으로 의심되어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밀진단 의뢰
- '07. 4. 26. 국립산림과학원 정밀진단결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판정

한편, 동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4월 26일자로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 이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전문가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발생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긴급방제대책반을 편성하여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일원의 산림 전체에 대하여 추가 감염목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방제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고사되었거나 죽어가는 소나무·해송·잣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각 시·군의 산림부서 또는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할 것을 산림청은 당부하였다. 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문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윤기택 (042-481-4064)

◆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지 조기 방제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추가발생지 청정지역 만들기 나서

봄철 소나무 재선충병 일제조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본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지역은 2005년 안동시 방제지 인근 2km 지점으로 서후면 이송천리 산71-2번지에서 발생지 주변 0.2ha의 소나무158본을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방제작업 중에 있는 지역이다.

이번 발견은 경상남·북도 지자체 방제지 중 국부적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안동, 구미·칠곡, 청도, 포항, 밀양 방제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고사목 제거계획을 세워 4월12일부터 일제작업과정에서 최종 확인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영돈)은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 소나무 158본을 매 분마다 노란색 띠로 표시하여, 소구역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제거하고, 제거목과 2cm 이상 잔가지는 톱밥제조기로 파쇄하고 36본은 메탐소디움 25%로 훈증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 방제의 일환으로 채취한 고사목 시료 864본은 5, 8까지 자체장비로 검사하여 조기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번 재선충병 조기 발견과 강력한 방제는 재선충병 확산 저지로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의 :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병해충방제팀
김갑일 054-850-778

◆ 체계적인 나무심기를 위한 10년간 장기계획 수립

-북부지방산림청, 10년간 나무심기 계획을 위한 현장조사 추진

종자채취·묘목생산·나무심기와 벌채사업간의 체계적인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10년간의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 조림계획의 목적은 종자채취·양묘·조림 및 벌채사업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 알맞는 나무심기와 목재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적인 조림 외에도 자연적인 복원력을 이용한 천연하중갱신 및 생태보안조림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장기간의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 5. 28(월)까지 현장조사

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수종별, 나이별 현황을 파악하고 산불·병해충 등 산림피해를 감안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재수급을 위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는 경제림육성단지의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나무심기 면적을 기준으로 매년 5%씩 확대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07년 봄철에 249ha의 나무심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을철에 53ha의 나무심기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 여건에 맞는 나무심기를 위하여 사업전에 현장토론회 및 벌채·조림 사전설계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차주봉 033-738-6231

◆ 솔잎혹파리 방제를 시작으로 병해충방제사업에 착수~

-양구국유림관리소,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성충의 우화시기 조사

지난 겨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돌발적인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는 5월 하순부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방제시기 결정을 위해 성충의 우화상태를 조사 중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한 양구군 관내 주요 도로 및 송이버섯 생산지 등을 중심으로 올해 200ha의 소나무숲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이달 하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성충의 우화상태를 조사 중에 있다.

또한 6월부터는 참나무시들음병 예찰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발견 즉시 방제할 예정이며 8월에는 잣나무넓적잎벌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감시원 30여명을 관내 국유림에 집중 배치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을 실시 중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는 맹독성으로 작업현장 및 인근지역에서의 산나물과 솔잎 채취를 금지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 문의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한병환 033-482-1303

◆ 건강한 소나무를 위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인제국유림관리소, 설악산 국립공원 등 500ha 솔잎혹파리 방제

산불조심기간 이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한창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6월말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소나무림 등 지역내 산림 500ha를 대상으로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스팜액제(4,400ℓ)를 사용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9. 30일까지 운영하며 산림보호감시원과 병해충예찰원을 채용해 9월말까지 돌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기능인 영림단 60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제에 사용되는 동력천공기(40대), 약제주입기 등 방제 장비의 점검을 마쳤다.

인제군 지역의 솔잎혹파리는 1980년 인제군 남면 남면 어론리 거니고개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그동안 꾸준히 방제하여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기상이변 등으로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솔잎혹파리의 경우, 소나무류 재선충병과는 달리 약 20%의 고사율을 보이며 방제가 가능한 산림병해충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가 고독성 농약이므로 솔잎혹파리 방제지역에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제지역에서는 솔잎 채취 등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소나무·잣나무재선충병 이동방지 MOU체결

-유관업체와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방지 공동대처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소나무류의 빈틈없는 이동확산을 막기 위해 각급 관공서 및 민간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동협약을 체결 대상으로는 대구시를 비롯한 구미, 경산, 칠곡 등 관할 시·군 지역내 제재소, 조경수, 분재 취급소 등 주요 목재취급 업체 12곳이 5월 21일 참가하였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목재의 유통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업체와의 협약체결로 재선충병의 확산저지 및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우선 관내 목재취급업체인 제일목재(주) 대표 정재완씨와 MOU(공동대응 업무협정)를 체결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재선충병의 발생 및 반출금지구역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관련업체는 재선충병 감염의심목의 불법반출이 있을시 적극적 신고와 또한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 산림행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관내 목재취급업체(12개)와의 공동대처로 불법 소나무류 이동을 미연에 방지할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 단체와도 지속적인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이혜철 054-712-4750

◆ 비상걸린 재선충확산 인턴예찰원이 막는다

-양산국유림관리소, 6월~8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허광수)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인턴예찰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턴으로 채용된 총 9명의 인턴예찰원이 6월 4일부터 부산, 김해, 밀양지역에서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목질부로부터 탈출하는 시기는 5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3개월이며 가장 많이 출현하는 시기는 6월 중·하순이어서 6월부터 8월까지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인턴예찰조사원을 감염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6월~8월 동안에 집중 배치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피해목을 철저히 색출하고 미발생지역에 대한 조기예찰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허광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 전에 막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철저한 예찰조사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도 중요하다”며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